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신성재*

1. 머리말
2. 출신과 정계 진출, 주요 군사활동
3. '勁騎' 중심의 부대 편성과 용병술
4. 장수로서의 자질과 군사적 역량
5. 맺음말

1. 머리말

전란의 시대에는 걸출한 역량을 지닌 장수들이 등장하곤 한다. 이른바 명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인물들은 弓裔·王建과 甄萱이 자웅을 겨루던 후삼국전란기에도 등장하였다. 公山戰鬥에서 왕건의 목숨을 구한 申崇謙, 고려의 개국 일등공신인 洪儒·卜智謙·裒玄慶 등은¹⁾ 그 대표적인 인물들일 것이다. 역사가 승자 중심의 기록임을

* 해군사관학교 軍史戰略學科 부교수

감안하면 이 같은 장수들은 고려 왕조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후백제와 신라에도 존재하였다. 이들이 지닌 전략적 식견과 지휘통솔력, 전술운용 능력에 따라 전투의 승패는 결정지어졌고, 전투의 승패는 전쟁 국면에 영향을 끼치면서 후삼국이 처한 정세 변화를 추동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하나의 통일 왕조를 탄생케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태조 왕건의 휘하에서 활약한 忠節公 庾黔弼 (~941.4)²⁾의 군사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유금필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 기여한 그의 군사적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금필의 列傳 기록을 보면, 그는 참전한 전투마다 승리를 이끈 상승장군이요, 비범한 식견을 갖춘 전략가였음이 드러난다. 유금필이 개선할 때면 태조가 반드시 마중 나가 위로를 해주었고, 시종일관 다른 장수들이 누리지 못하는 총애와 대우를 해주었다고 하는 기록은³⁾ 그가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무장이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최대의 수훈을 세운 공신이었음을 말해준다.

유금필의 행적이 제법 전해지는 상황이지만, 근래까지 그에 대한 관심은 『高麗史』 열전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위인전을 통해 소개되거나,⁴⁾ 신라 말 고려 초의 역사를 정리한 한국사 개설서와⁵⁾ 일부 학술서적들을⁶⁾ 통해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1) 『高麗史』 卷92, 列傳5 洪儒.

2) 『庾黔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책에서 ‘유금필’로 읽고 표기한다. 근래 이도학이 ‘유검필’로 읽고 표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금필’로 서술한다. 이도학이 제시한 견해의 주요 논거는 『궁예 진흥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176쪽 ; 『후백제 진흥대왕』, 주류성, 2015a, 498쪽 참조.

3)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及凱還太祖必迎勞 終始寵遇諸將莫及”.

4) 洪良浩 著 李鍾學 譯, 『韓國名將傳』, 博英社, 1974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海東名將傳』, 1987.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4·5, 1976·1981·1975.

이후 전쟁사 분야의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보다 풍부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⁷⁾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금필을 專論으로 다룬 학술논문들이 제출 되기에 이르렀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유금필의 군사활동을 유기적으로 검토한 논고를 비롯하여⁸⁾ 후삼국 통일전쟁의 최대 결전인 一利川戰鬪에서의 활약상과 사후 聖興山城 내 庾太師廟에 配享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룬 논문,⁹⁾ 유금필이 성흥산성에 소재한 城隍祠의 主神으로 모셔지게 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핀 논문들은¹⁰⁾ 그 주요한 성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들은 유금필이 후삼국 통일전쟁에서 수행한 군사활동의 내용과 의미, 지방사회 내에서의 위상 등을 밝혀냄으로써 학술적 차원의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가 벌인 군사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는 충분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 역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가 지휘한 부대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군사운용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유금필 부대의 편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지닌 전략적 식견과 전술 구사능력, 지휘통솔 문제, 장수로서의 자질 등에 관한 내용까지 두루 검토되는 가운데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선학들이 일궈낸 성과를 적극 반영하면서 충절공 유금필

6) 文暉鉉,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 研究』, 一潮閣, 1993 ;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7)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4 ;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 이도하, 『후삼국 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b.

8) 金甲童,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軍史』, 69, 2008.

9) 김갑동, 「고려 태조 왕건과 유금필 장군」 『人文科學論文集』 46, 대전대학교, 2009.

10) 김효경, 「부여 林川郡 城隍祠와 庾黔弼」 『역사민속학』 26, 2008.

이 수행한 군사활동과 용병술, 장수로서의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출신과 정계 진출, 주요 군사활동

고려시대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유금필은 平州人(평주인)으로 나온다.¹¹⁾ 평주는 삼국이 항쟁하던 시기에 고구려가 관할하던 大谷郡이었다. 이 지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景德王代에 이르러 永豐郡으로 개명되었다. 이후 고려가 건국되면서부터 평주로 불리게 된 곳으로 지금의 황해도 평산군에 해당한다.¹²⁾

유금필의 선대에 대한 기록은 부재하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그의 선대는 평주에서 상당한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딸이 태조 왕건과 혼인하여 東陽院夫人이 되고,¹³⁾ 그 자신이 鵠島(백령도)에 유배된¹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민들을 규합하여 후백제의 해상 침탈에 대응하였다고 하는 기록은¹⁵⁾ 그의 선대가 평주와 인근 지역에서 누렸을 정치사회적 위상을 짐작케한다. 그가 涓江鎮의 軍鎮勢力에서 豪族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는 견해는¹⁶⁾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선대와 관련한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가 평주의 토착 가문 후손이었는지 혹은 타 지역으로부터 移居해온 가문의 후예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신라가 782년(선덕왕 3)에 패강진을 설치하면

11) 『高麗史』 卷92, 列傳5 庚黔弼. “庚黔弼平州人”.

12) 金甲童, 앞의 논문, 2008, 34쪽.

13)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東陽院夫人庚氏.

14) 『高麗史節要』 卷1, 太祖神聖大王 太祖 14년 3월.

15) 『高麗史』 卷92, 列傳5 庚黔弼.

16) 鄭淸柱, 앞의 책, 1996, 116쪽.

서 사민정책을 추진하고,¹⁷⁾ 왕건의 후삼국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朴守卿의 선대가 신라 말에 패강 지역으로 이주해왔다고 하는 기록에 주목해본다면,¹⁸⁾ 유금필의 선대 역시 패강진 설치를 계기로 평산 지역으로 이거해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¹⁹⁾ 후대에 편찬된 족보를 보면 平山庾氏와 茂松庾氏는 같은 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마도 이 같은 현상은 유금필의 증손으로 중앙에서 현달한 庾長信 계열과 달리 아침죄를 지어 檢校蔣作少監에 머무른 庾恭義²⁰⁾의 아들 庾祿崇이 벼슬을 하지 못하고 고향인 무송으로 낙향하여 그곳을 移封 받게되면서 본관으로 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²¹⁾ 그렇다고 한다면 유금필의 선대가 살던 지역은 본래 高敞郡 茂長面 茂松縣이었지만, 패강진이 설치되고 사민정책이 추진되면서 평산 지역으로 이주해간 셈이 된다.²²⁾

유금필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는 궁예정권이 溟江地域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던 분위기 속에서 마련되었던 것 같다. 궁예정권이 904년에 패강지역으로 세력 확대를 꾀하자, 위기 의식을 느낀 溟江道 소속의 10여 州縣은 궁예에게 항복하였다.²³⁾ 궁예는 접수한 지역들을 13개의 鎭으로 분정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²⁴⁾ 유금필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궁예정권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17) 『三國史記』 卷40, 職官志 下 外官 溟江鎭典; 『三國史記』 卷9, 宣德王 3년 2월.

18) 『朝鮮金石總覽』 朴景仁墓誌; 『韓國金石文追補』 朴景山墓誌. 박수경 가문의 성장은 鄭淸柱, 「신라말·고려초 호족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一考察」 『역사학보』 118, 1988(앞의 책, 1996, 45~46쪽) 참조.

19) 金甲童, 앞의 논문, 2008, 35~37쪽.

20)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9년 8월; 『高麗史節要』 卷4, 文宗仁孝大王1 文宗 9년 8월.

21) 평산유씨와 무송유씨를 별개의 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160쪽; 鄭淸柱, 앞의 책, 1996, 117쪽 참조.

22) 평산이 유금필의 본거지라기보다는 후대의 식읍으로 보기도 한다(文秀鎭,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 『成大史林』 4, 1987, 22쪽).

23)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8년.

24)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8년; 『三國史記』 卷50, 列傳 弓裔 天祐 2년.

같다.²⁵⁾ 유금필이 궁예정권하에서 활동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왕건에 의해 궁예정권이 몰락하고 고려가 건국되던 918년부터 역사의 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유금필이 고려 왕조에서 수행한 군사활동은 가히 드라마틱하면서도 역동적이다. 그는 후백제와 벌인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여 무훈을 세웠다. 참가한 전투마다 승리를 이끌어냈고, 불리한 처지에서도 전세를 역전시키는 투혼을 발휘하였다. 유금필이 일생 동안 수행한 군사활동을 특별히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²⁶⁾ 시기별로 유금필이 수행한 군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금필이 활동한 제1기(918.~924.)는 고려가 건국되면서 그의 활동이 점차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그의 존재는 왕건이 집권하던 918년(태조 원년) 6월에 처음 등장한다. 유금필은 이 시기에 개국 1등공신인 홍유와 함께 馬軍將軍의 직함으로 병사 1,500명을 거느리고 鎭州(충북 진천)에 주둔하면서 변란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⁷⁾ 당시 유금필은 왕건을 추대하는 논의에는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입장과 보조는 같이 하였던 것 같다.²⁸⁾ 이는 유금필이 궁예 말년에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²⁹⁾

유금필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던 시기는 920년 3월부터였다. 당시 고려의 북계 지역에 설치된 鵠岩鎭³⁰⁾은 말갈족으로 지칭되던 北狄³¹⁾들의 침입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다. 태조는 이들을 평정하는

25) 金甲童, 앞의 논문, 2008, 37~38쪽.

26) 1기(918.~924.), 2기(925.~930.), 3기(931.), 4기(932.~934.) 5기(935.~936.) 등이다.

27) 『高麗史』 卷92, 列傳5 王順式.

28) 朴龍雲, 「高麗時代의 茂公與氏家門 분석」 『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私學論叢』, 1987, 286~287쪽.

29) 鄭清柱, 앞의 책, 1996, 115쪽.

30) 李基白, 「高麗太祖 時의 鎭」 『歷史學報』 10, 1958(『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35쪽)에서는 함경도 안변 신대리로 비정하였으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31) 金光洙,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史叢』 21·22, 1977, 143쪽.

적임자로 유금필을 지목하였다. 왕명을 받은 유금필은 정부 직속군으로 편성된 開定軍 3,000명을 이끌고 출정하였다.³²⁾ 골암진에 도착한 그는 동쪽 산에 커다란 성을 쌓고 추장들을 불러 모아 주연을 베푼 다음 이들이 취한 틈을 타 위협하여 복종토록 하였다. 유금필은 추장과 부락민 등 1,500명의 항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고려인 3,000명을 방환해오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고려는 유금필의 활약으로 북방 지역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남방의 후백제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금필이 활동하던 제2기(925.~930.)는 충남 지역과 경북 지역의 요충지를 둘러싸고 후백제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시기였다. 그는 이 기간 중에 燕山鎮과 任存郡을 공격하고, 조물성전투와 고창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925년(태조 8) 10월, 征西大將軍에 임명된 유금필은 연산진을 공격하여 장군 吉奐을 죽였다. 그리고 임존군에서는 3천여 명을 살획하는 전공을 세웠다.³³⁾ 연산진은 청주시 문의면으로 비정되는 곳이다.³⁴⁾ 청주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중간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후백제의 최일선 요충지에 해당한다.³⁵⁾ 임존군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을 말한다.³⁶⁾ 유금필은 이 지역들을 공략함으로써 충청 지역에까지 고려의 영향력을 확대시킴은 물론 예산과 청주 일대를 연결하는 대후백제 방어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충청 지역에서의 전투가 일단락된 뒤, 고려군은 후백제군과 조물군에서 격돌하였다.³⁷⁾ 전황은 견훤의 군사가 정예로워 승부를 결정

32) 朴天植, 「高麗土族의 形成·發展과 階層構造」 『國史館論叢』 26, 1991, 45쪽.

33) 『高麗史』 卷1, 太祖 8년 冬 10월 ;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5, 文義縣 建置沿革. 申虎澈, 앞의 책, 1993, 73쪽.

35) 문안식, 앞의 책, 2008, 129쪽.

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0, 大興縣 建置沿革. 류영철, 앞의 책, 2004, 79쪽.

37) 조물성전투를 말한다. 전투의 내용에 대해서는 『高麗史』 卷1, 太祖 8년 冬 10월 ;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조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선산 금오산성설,

짓지 못할 정도였다. 왕건은 후백제군의 병세가 약화되기를 기다려 싸우고자 하였다. 하지만 유금필이 임존군으로부터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합침에 따라³⁸⁾ 전세는 고려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전되었다. 고려군의 군세가 강화되자 부담을 느낀 견훤은 왕건에게 화친을 요청하였다.³⁹⁾ 유금필 부대의 신속한 지원에 따라 왕건은 견훤과 화친 관계를 수립하고 잠시나마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유금필은 930년(태조 13) 정월 안동 지방에서 발발한 고창 전투에서 최대의 수훈을 세웠다.⁴⁰⁾ 전투에 앞서 고려의 장수들은 전황이 불리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탈출구를 마련해두자는 등 후백제군과의 대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유금필은 장수들이 싸우기도 전에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의 전황상 신속히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적의 방어 태세가 허술한 猪首峯⁴¹⁾ 방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의 공세적인 전투에 의해 고려군은 대승하였고, 경북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왕건이 “오늘의 승첩은 경의 힘 덕분이다”며 그의 공적을 극찬한 것은 실로 유금필의 활약이 고창전투의 승리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유금필이 활동한 제3기(931.)는 그의 일생 중 최대의 정치적 시련

안동 부근설, 김천 조마면설, 안동과 상주 사이설, 의성 금성설 등 견해가 다양하다. 제 견해는 류영철, 앞의 책, 2004, 76쪽; 문안식, 앞의 책, 2008, 126쪽; 김갑동, 앞의 책, 2010, 35쪽 참조.

38) 류영철, 앞의 책, 2004, 83쪽.

39)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왕건측이 화친을 요청한 것으로 나온다. 화친을 요청한 주체에 대한 여러 견해는 류영철, 앞의 책, 2004, 84~85쪽; 이도하, 앞의 책, 2015, 209~210쪽 참조.

40) 이하 전투 내용은 『高麗史』 卷1, 太祖 13년 春 正月;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41) 현재의 안동군 와룡면 서지동 서남쪽에 위치한 봉우리(이형우, 「古昌戰鬪考」 『上智實業專門大學論文集』 12, 1982, 11쪽) 혹은 안동여자중학교 뒤편쪽에 바라보이는 곳으로 비정된다(柳永哲, 「古昌戰鬪와 후삼국의 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 7, 1999, 39쪽).

기였다. 고창전투 이듬해인 931년(태조 14) 3월, 유금필은 죄인의 몸으로 백령도에 유배되었다.⁴²⁾ 그가 유배된 이유에 대해서는 참소에 따른 것으로 기록되었을 뿐 구체적이지 않다. 아마도 이는 정치세력간의 견제와 마찰이 빚어낸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즉 패서지역 출신인 그가 전투에서 무공을 세워 태조로부터 신임을 한 몸이 받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점차 비중 있는 위치를 점유해 가던 현실 속에서 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들로부터 견제와 모함을 받지 않았나 추측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유배에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도 보인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정이다. 그는 비록 유배중인 처지였지만 후백제의 수군이 서해 중북부 해역으로 북상하면서 고려의 수군활동을 압박하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후백제의 해상 침탈로 고려의 수군이 위기에 봉착하자 지역민과 물자를 동원하여 군대를 편성하고 전함을 정비하는 등 서해 중북부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해상방어망을 구축하였다.⁴³⁾ 유금필이 유배 중이던 시기에 추진한 해상방어력 강화 노력으로 말미암아 고려는 후백제의 북상을 억제하고 해상 도전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⁴⁴⁾

유금필의 제4기(932.~934.) 행적은 유배지로부터 풀려나면서 시작되었다. 932년(태조 15), 왕건은 유금필을 征南大將軍에 임명하여 신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義城府(경북 의성)를 지키게 하였다.⁴⁵⁾ 유금필은 이 시기에 비상한 군사활동 능력을 보였다. 그는

42) 유금필이 곡도 유배기에 벌인 군사활동은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43) 후백제의 수군이 932년 9~10월에 예성강 수역과 대우도 해역을 공략해온 사건을 말한다(『高麗史』 卷2, 太祖 15년 9월·冬 10월). 이 시기 고려와 후백제의 서해 중북부 해역을 둘러싼 해상권쟁탈전의 추이는 신성재, 「후백제의 수군활동과 전략 전술」 『한국중세사연구』 36, 2013 ;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혜안, 2016, 143~147쪽 참조.

44) 이도학, 앞의 책, 2015, 379쪽.

45) 이하 유금필이 정남대장군으로 활동한 내용은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견훤의 장남 神劍이 槎灘⁴⁶⁾을 경계 삼아 고려군의 경주 진출을 저지하자, 80명에 불과한 壯士들을 이끌고 출정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경주에 입성하였다. 그는 회군하던 중 子道에서 신검의 군대와 다시 금 조우하였다. 그는 이 전투에서도 적장 今達·兎弓 등 7명의 장수들을 사로잡고 무수히 많은 적병들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왕건은 그의 공적이 옛날에도 드문 일이라고 하며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유금필의 눈부신 활약은 단연 運州(홍성)전투에서 발현되었다. 934년(태조 17) 9월, 왕건은 운주를 정벌하기 위해 유금필을 右將軍에 임명하였다.⁴⁷⁾ 고려군이 남진하자 견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甲士 5천명을 이끌고 북상하였다. 양군이 조우하게 되자 견훤은 무지한 병사들만 살상될 우려가 있으니 화친하여 각자의 영토를 보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왕건은 견훤이 제시한 화친안을 놓고 장수들과 의논하였다. 유금필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상황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형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투를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후백제군이 미처 진을 치지 못한 틈을 노려 勁騎 수천으로 하여금 돌격케하여 3천여 급을 참획하고 용맹스런 장수 尙達·崔弼 등을 사로잡는 쾌거를 거두었다. 운주가 고려의 영향권으로 들어오자 熊津(공주)를 포함한 그 북쪽에 위치한 30여 성 역시 항복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유금필의 정확한 전황 파악 능력과 결단력, 용맹스런 활약에 의해 고려는 홍성과 공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배권의 범위를 충청 남부지역에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46)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나, 경주로 들어서는 길목으로 추정된다(이도하, 앞의 책, 2015, 384쪽).

47) 운주전투에 관한 기록은 『高麗史』 卷2, 太祖 17년 9월 ; 『高麗史』 卷92, 列傳5 庚黔弼 참조. 이와 관련한 기왕의 연구 동향은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2004 ;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軍史』 96, 2015 참조.

유금필이 활동한 제5기(935.~936.)는 그가 마지막으로 군사활동을 수행한 시기이다. 이 시기 그의 행적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특별히 수군을 지휘한 점이다. 후삼국 통일을 1년여 앞둔 935년(태조 18) 4월, 왕건은 여러 대신과 장수들을 모은 자리에서 후백제에게 빼앗긴 나주지역을 탈환하는 책임자 천거를 명하였다.⁴⁸⁾ 公萱과 梯弓 등은 유금필을 천거하였다.⁴⁹⁾ 왕건 역시 유금필을 의중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신라로 통하는 길을 뚫는데 수고한 것을 생각하여 차마 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유금필은 태조의 의중을 간파하고 국가의 대사에 신명을 바칠 것을 자처하였다. 그는 나주를 경략(經略)하는 도통대장군(都統大將軍)에 임명되어 이 지역을 탈환하는 수군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다음 복귀하였다.

고려는 유금필의 성공적인 나주 탈환으로 서남해역 해상권을 다시금 확보하고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⁵⁰⁾ 나아가 그것은 후삼국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정치외교적인 효과를 낳게 하였다. 나주에서의 수군활동이 종료된 935년 6월, 신검이 일으킨 정변으로 말미암아 金山寺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은 나주로 탈출한 다음 고려 정부로 入朝해올 뜻을 전하였다. 왕건은 견훤을 호송해오는 임무를 유금필에게 일임하였다. 유금필은 대광 萬歲를 비롯한 수군과 전함을 거느리고 바닷길을 경유하여 견훤을 안전하게 호송해왔다.⁵¹⁾

견훤이 입조하자 후삼국 정세는 고려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936년(태조 19) 9월, 왕건은 후백제를 결전 및 속전속결

48) 이하 내용은 『高麗史節要』 卷1, 太祖神聖大王 18년 ; 『高麗史』 卷92, 列傳5 兪黔弼 참조.

49) 유금필이 추천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훤과 제궁이 패서지역 출신 호족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李泰鎮, 「金致陽 亂의 性格」 『韓國史研究』 17, 1977, 79~80쪽 참조.

50) 신성재, 「고려의 수군전략과 후삼국통일」 『東方學志』 158, 2012, 73쪽.

51)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8년 6월.

전략으로 제압하기 위해 87,5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후백제정벌군을 편성하였다.⁵²⁾ 유금필은 태조를 따라 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는 후삼국전란기의 최대 결전인 일리천전투에 中軍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참전하여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통일 왕국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⁵³⁾

3. ‘勁騎’ 중심의 부대 편성과 용병술

유금필이 거느린 부대가 매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지휘한 부대의 편성과 전술적인 특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유금필 부대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지만, 전투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부대가 전술적으로 어떠한 장점을 지닌 부대였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대 편성에 기초한 군사 운용이라는 용병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우선, 유금필이 거느린 부대의 편성은 그 자신이 왕건을 섬기기 시작하던 건국 초기부터 마군장군으로 활동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⁵⁴⁾ 대체로 기병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구체적인 실상은 고려가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편성한 정벌군의 조직과 편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리천전투시 고려군의 실상을 전하는 936년(태조 19) 9월의 기록에는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난다.

52)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9년 秋 9월. 결전과 속전속결 전략에 입각한 일리천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태조 왕건의 전략 전술」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참조.

53) 위와 같음.

54) 『高麗史』 卷92, 列傳5 庚黔弼. “事太祖 爲馬軍將軍 累轉大匡”.

갑오일에 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왕이 견훤과 더불어 군사를 사열하였다. 왕이 견훤을 비롯하여 大相 堅權·述希·皇甫金山과 元尹 康柔英 등으로 馬軍 1만을 거느리게 하고, 支天軍大將軍 元尹 能達·奇言·韓順明·昕岳과 正朝 英直·廣世 등은 步軍 1만을 거느리게 하여 左綱으로 삼았다. 大相 金鐵·洪儒·朴守卿과 元甫 連珠·元尹 萱良 등은 馬軍 1만을 거느리게 하고, 補天軍大將軍 元尹 三順·俊良·正朝 英儒·吉康忠·昕繼 등은 步軍 1만을 거느리게 하여 右綱을 삼았다. 溟州大匡 王順式과 大相 兢俊·王廉·王乂·元甫·仁一 등은 馬軍 2만을 거느리게 하고, 大相 庾黔弼과 元尹 官茂·官憲 등은 黑水·達姑·鐵勒의 諸蕃勁騎 9,500을 거느리게 하고, 祐天軍大將軍 元尹 貞順과 正朝 哀珍 등은 步軍 1천을 거느리게 하고, 天武軍大將軍 元尹 宗熙와 正朝 見萱 등은 步軍 1천을 거느리게 하고, 杆天軍大將軍 金克宗과 元甫 助杆 등은 步軍 1천을 거느리게 하여 中軍으로 삼았다. 大將軍 大相 公萱과 元尹 能弼 및 장군 王含允 등은 騎兵 300과 여러 성의 군사 14,700을 거느리게 하여 3군의 援兵으로 삼았다.⁵⁵⁾

고려가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편성한 정벌군은 무려 87,500명의 대병력이었다. 태조 왕건을 총지휘관으로 38명의 장수들이 동원되어 3군과 援軍을 지휘하는 통수체계를 조직하였다. 3군은 左綱과 右綱, 中軍으로 구분하여 마군과 보군을 주력으로 구성하되 중군 소속의 마군 비율을 현저히 높이는 방식으로 편성하였다.⁵⁶⁾ 주력인 3군을 지원하는 부대로는 여러 城으로부터 군사 14,700명을 징발하

55) 『高麗史』卷2, 世家2 太祖 19년 秋 9월. “甲午隔一利川而陣 王與甄萱觀兵 以萱及大相堅權述希皇甫金山元尹康柔英等領馬軍一萬 支天軍大將軍元尹能達奇言韓順明昕岳正朝英直廣世等領步軍一萬爲左綱 大相金鐵洪儒朴守卿元甫連珠元尹萱良等領馬軍一萬 補天軍大將軍元尹三順俊良正朝英儒吉康忠昕繼等領步軍一萬爲右綱 溟州大匡王順式大相兢俊王廉王乂元甫仁一等領馬軍二萬 大相庾黔弼元尹官茂官憲等領黑水達姑鐵勒諸蕃勁騎九千五百 祐天軍大將軍元尹貞順正朝哀珍等領步軍一千 天武軍大將軍元尹宗熙正朝見萱等領步軍一千 杆天軍大將軍金克宗元甫助杆等領步軍一千爲中軍 大將軍大相公萱元尹能弼將軍王含允等領騎兵三百諸城軍一萬四千七百爲三軍援兵”.

56) 신성재, 앞의 논문, 2011, 344쪽.

여 援兵으로 편성하였다. 후백제정벌전에 참가한 고려군의 부대 편성과 조직, 규모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 고려군의 편성 조직과 지휘체계>

군 편성	병종	병력	지휘관	비고	
3군	좌강	마군	10,000	甄萱, 견권, 박솔희, 황보금산, 강유영	
		보군	10,000	능달, 기연, 한순명, 혼악, 영직, 광세	지천군대장군
	우강	마군	10,000	김철, 홍유, 박수경, 연주, 환량	
		보군	10,000	삼순, 준량, 영유, 길강충, 혼계	보천군대장군
	중군	마군	20,000	왕순식, 궁준, 왕림, 왕예, 인일	
		勁騎	9,500	유금필, 관무, 관현	諸蕃 (흑수, 달고, 철록)
		보군	1,000	정순, 애진	우천군대장군
			1,000	종희, 見萱	천무군대장군
			1,000	김극중, 조간	간천군대장군
원병	기병	300	공현, 능필, 왕함운		
	-	14,700		諸城軍	
계		87,500	38		

위 표에서 흥미롭게 인식되는 부분은 중군 소속의 지휘관으로 참전한 유금필이 거느린 흑수·달고·철록으로 구성된 제병경기 9,500명의 존재이다. 이들은 고려의 군사들과는 달리 당시 북방 지역에 거주하던 蕃人들로 구성된 이민족 출신의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고려군이 馬軍, 騎兵으로 호칭된 것과 같이 말을 타고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를 의미하는 ‘騎’로 표현된 점에서 기병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군세고 날랜 기병’임을 나타내는 ‘勁騎’로 표현되고 있다.⁵⁷⁾ 이는 정벌군을 구성한 고려군이 마군, 기병으로 기록된 것과 달리 자신들만의 전술적 특징을 반영하는 듯한 경기로 특화하여 표현된 점에서 이 기병이 지닌 군사적 성격을 가늠케 한다. 종래의 기병들과 달리 특별히 빠른 속도와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갖춘 기병들로 편성한 군사들이었기에 그와 같이 호

57) 김갑동, 앞의 논문, 2009, 40쪽 ; 김갑동, 앞의 책, 2010, 232쪽.

칭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들은 민첩한 기동력과 우수한 무장력, 강력한 돌파력, 다양한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는 전술운용 능력을 갖춘 기병들로 전투원 개인은 물론 조직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전투 역량을 발휘하던 존재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⁵⁸⁾

주지하듯이 경기의 뛰어난 전투력은 일찍이 9세기 중반에 발휘된 전례가 있다. 839년 정월, 興德王 사후 벌어진 왕위쟁탈전에 가담한 張保臯는 군세게 조련시킨 ‘勁卒 5천’을 보내어 金昕이 지휘하던 신라의 정부군 10만 대군과 大丘에서 대적하게 하였다.⁵⁹⁾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정부군은 장보고가 보낸 청해진의 군사 5천에게 대패하였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보고군의 주력은 ‘馬兵’으로 불리우던 기병 3천이었다. 이들은 상대방의 軍中을 빠른 속도와 과감한 돌파력으로 타격하면서 거침 없는 전투를 벌였다.⁶⁰⁾ 대구전투에 등장하는 마병은 유금필 부대의 경기와는 그 표현이 다르다. 하지만 이들 마병은 굳센 전투 능력을 지닌 군사들을 지칭하는 경졸 5천을 구성하던 병력이었다. 경졸 5천에 포함된 마병의 존재는 유금필이 거느렸던 경기와 흡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유금필은 자신의 휘하 병력을 경기 중심의 군사들로 편성한 다음

58) 유금필 부대를 구성한 ‘경기’의 실체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병사 개개인이 소지하였던 군마와 무장, 전투 장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적인 전술 구사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의 부대 편성과 전술적 특징을 자세히 입증할만한 자료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북방 유목민들이 운용하던 경기병의 경우처럼 무장은 가볍지만 신속한 기동 타격능력을 갖춘 기병들과 속도는 낮지만 강한 돌파력을 발휘하던 기병들이 적절한 규모로 혼합 편성된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정해본다.

59)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陽. 장보고군과 싸운 신라 정부군 10만의 수치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불신하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서영교, 「張保臯의 騎兵과 西南海岸 牧場」 『震檀學報』 94, 2002 ; 신성재, 「청해진의 해상방위와 군사운용」 『軍史』 78, 2011 참조.

60) 마병의 활약상은 서영교, 위의 논문, 2002, 55~64쪽 ; 신성재, 위의 논문, 2011, 8~11쪽 참조.

전투 상황에 적합한 전술을 구사하여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를 활용한 그의 뛰어난 용병술은 934년 충남 흥성지방에 발발한 운주전투에서 확인된다. 왕건은 운주전투를 치르기에 앞서 견훤이 중무장한 정예군으로 甲士 5천⁶¹⁾을 이끌고 오자 부담을 느끼고 화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금필은 화친을 반대하고 과감한 선제 공격을 건의하였다. 그는 후백제군이 형성하고 있던 진형의 취약한 측면을 간파하고, 그곳에 경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격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견훤이 진을 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경기 수천으로 돌격하여 3천여 급을 참획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후백제군의 취약한 진형을 파악한 유금필이 기동타격 능력이 뛰어난 경기를 활용한 용병술을 적극 구사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경기가 활약한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930년 고창전투에서도 이들이 활약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왕건은 이 전투에서도 운주전투의 경우처럼 싸움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사잇길을 마련하자는 등 제장들과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유금필은 이러한 대응책을 비판하면서 시급히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거느리던 군사들을 저수봉 방면으로부터 돌격케 하여 후백제군을 대파하였다. 저수봉 방면이 취약한 것을 간파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경기를 투입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한편 유금필 부대를 구성한 경기에 대해서는 제번경기가 참전한 936년 일리천전투의 기록에 주목하여 여진 기병으로서 傭兵으로 보는가 하면,⁶²⁾ 북방 유목 종족의 제번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용병부대,⁶³⁾ 고려가 회유한 함경도 등지의 여진족,⁶⁴⁾ 북방의 유이민으로

61) 이도학, 앞의 책, 2015b, 392~394쪽.

62) 金光洙, 앞의 논문, 1977, 146~147쪽.

63) 鄭景鉉, 「高麗太祖의 一利川 戰役」 『韓國史研究』 68, 1990, 23쪽.

64) 文暻鉉, 앞의 책, 1987, 282쪽.

고려가 군대에 편입시킨 용병⁶⁵⁾으로 파악하는 등 대체로 북방 이민족 출신으로 구성된 군사들로 이해하고 있다. 일리천전투에 참가한 흑수·달고·철륵이 북방의 제번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해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일리천전투보다 이전 시기에 발발한 운주전투에서 활약한 경기와 고창전투 및 조물성전투에 참가한 군사들 역시 북방의 이민족 중심으로 구성된 경기였을지는 의문이 든다. 관련 기록과 정황적 증거 등에 근거해볼 때, 유금필이 거느렸던 경기는 고려가 국초부터 운용하던 기병에 북방으로부터 항복해온 여러 이민족 출신의 기병들이 포함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유금필이 920년 초에 고려의 개정군 3천명을 이끌고 가서 골암진에 산거하던 北狄들을 평정하자, 그 뒤 많은 무리들이 항복해왔다고 하는 기록을⁶⁶⁾ 보면 본래 유금필이 거느리고 있던 고려군에 북방 이민족들의 기병이 더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병력 동원의 규모가 커지고, 지상전이 격화되어 가던 흐름 속에서 이들 이민족 출신의 기병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 건국 이후로 북방에 散居하던 이민족들의 투항 사례가 늘어나고,⁶⁷⁾ 발해 멸망을 계기로 수만 명의 유이민들이 고려로 유입된 사례를⁶⁸⁾ 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민족 출신의 군사들이 점증하여 다수를 형성해가던 상황 속에서 응당 이들 출신의 장수들에게 지휘권이 부여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범위는 소규모의 단위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기록상 최고 지휘권은 유금필이 행사하였다. 단위 부대를 領率하는 중견급 지휘관의 임무 역시 대체로 고려의 장수들이 행사하였던 것

65) 金昌謙, 「高麗 太祖代 對流移民政策의 性格」 『國史館論叢』 35, 1991, 210쪽.

66)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高麗史』 卷82, 志36 兵2 鎮戍 참조.

67)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4년 春 2월·夏 4월.

68)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7년 秋 7월.

같다. 유금필과 함께 일리천전투에 참가하여 제번경기를 지휘한 인물로 고려의 장수 官茂와 官憲 등이 언급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상과 같이 유금필의 부대는 경기로 불리우는, 보통의 마군과 달리 전투 능력이 뛰어난 기병들이 주력을 형성하였다. 유금필은 이들 경기들이 지닌 민첩한 기동력과 뛰어난 무장력, 강력한 돌파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용병술을 발휘하여 매 전투마다 승리하였다. 유금필이 마군장군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기병들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920년 초 골암진을 평정한 뒤부터는 북방 변인들의 귀순이 늘어나면서 이민족 출신의 경기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삼국 통일전쟁이 절정에 달하던 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그 수효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기를 주력으로 하는 유금필의 부대 편성과 용병술에 근간하여 고려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 장수로서의 자질과 군사적 역량

유금필의 생애를 전하는 열전에는 그가 태조 24년(941)에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무장으로서 특출난 자질을 지녔음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즉 “금필은 將略이 있어 사졸들의 마음을 얻었고, 매 출정을 명 받으면 집에 들러 자지 않고 즉시 출발했다”⁶⁹⁾고 한다. 장수로서 지략이 풍부하고, 부하들에 대한 지휘통솔력이 뛰어났으며, 직분에 충실했던 유금필의 무장다운 면모를 짐작케 하는 기록이다. 태조

69) 『高麗史』卷92, 列傳5 庚黔弼. “黔弼有將略得士心 每出征受命卽行不宿於家”.

왕건으로부터 충애와 대우를 받았던 장수 유금필, 그는 과연 장수로서 어떠한 자질과 역량을 지녔던 인물이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그가 지녔다고 하는 ‘장략’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유금필이라고 하는 장수 개인이 지닌 군사적 역량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의 자질과 역량이 군사들의 전투 의지와 전투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추론을 가능케 한다. 또한 유금필 부대가 참가하는 전투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장략이라고 하면 장수의 ‘智略’ 혹은 ‘智謀’ 정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유금필의 열전에서 언급된 장략은 장수가 지닌 ‘자질’ 혹은 ‘역량’으로 전투를 지휘하는 지략이나 지모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유금필이 장략이 있어 사졸들의 마음을 얻었고, 장수로서 출정 임무를 사심없이 완수하였다고 하는 기사는 그가 장수로서 지녔던 다양한 자질을 짐작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동양 최고의 병법서로 애독되어온 『孫子兵法』에서는 장수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智·信·仁·勇·嚴을 핵심 덕목으로 꼽고 있다.⁷⁰⁾ 『吳子兵法』에서도 장수의 자질을 언급하고 있다. 오자병법 論將에서는 威·德·仁·勇을 강조한다.⁷¹⁾ 太公望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六韜』에서는 勇·智·仁·信·忠을 장수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한다.⁷²⁾ 비록 중국의 병서에서 강조된 덕목이지만 후삼국전란기에도 이러한 자질들은 장수들 사이에서 중시되어졌음직하다. 왕건이 17세 되던 해에 道詵으로부터 진을 치고 지리의 이로운과 天時를 보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기록은⁷³⁾ 당대의 장수들이

70) 『孫子兵法』 始計. “將者智信仁勇嚴也”.

71) 『吳子兵法』 論將. “然其威德仁勇”.

72) 『六韜』 龍韜 論將. “太公曰 所謂五材者 勇智仁信忠也”.

73) 『高麗史』 高麗世系. “太祖年十七 道詵復至請見曰 足下應百六之運 生於天府名墟

누대에 걸쳐 전해져오던 병서들을 입수하여 전략과 전술을 연마하고 자질을 배양하는데 활용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의 장수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음직한 병서로는 육도를 들 수 있다. 塩州 출신의 尹瑄이라는 인물은 이를 적절히 설명해준다. 그는 사람 됨됨이가 침착하고 용감하였으며, 특히 육도에 정통하였다고 한다.⁷⁴⁾ 윤선은 원래 궁예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궁예의 폭정이 심화되자 북방으로 달아나 鵲巖城을 근거지로 삼고 활동하였다. 그는 주변의 흑수인들을 불러모아 세를 불리고 고려의 국경 지대를 괴롭히곤 하였다. 고려 정부는 북방에서 자주 소요 사태가 발생하던 사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왕건은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유금필을 파견하였다. 유금필의 기지에 의해 윤선은 고려에 귀순하였다. 이후 그는 유금필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의 휘하 장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윤선이 유금필의 휘하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육도에 정통하던 그의 병법 지식은 자연스럽게 유금필의 군사지식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뛰어난 무장이었던 유금필은 이 과정에서 육도에서 중시하던 장수의 자질에 주목하였음직하다. 특히 그는 육도에 나오는 용·지·인·신·충의 덕목을 실천하고 군사를 지휘통솔하는 원리로 활용하였을 것이다.⁷⁵⁾ 결국 이러한 덕목들에 기초하여 발휘된 그의 리더십은 장졸들의 단결심과 전투력을 고양시키고 승전을 도모케 하는데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유금필이 육도에 제시된 장수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실천하였음

三季蒼生待君弘濟 因告以出自置陣地利天時之法 望秩山川感通保佑之理”.

74) 『高麗史』 卷92, 列傳5 王順式. “尹瑄塩州人 爲人沈勇善韜鈴”. 이하 윤선과 유금필의 인적관계 형성 과정은 열전 왕순식 참조.

75) 유금필이 지녔음직한 장수로서의 자질은 육도에 나오는 5개의 덕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당대까지 전승되어 오던 여러 병서에서 제시하는 덕목들 역시 주된 섭렵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윤선의 열전 기록에 근거하여 육도의 덕목에 주목한다.

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용’의 자질을 실천한 사례를 보자. 이는 930년 정월 고창전투에 임하는 유금필의 전투의지와 실제 전투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난다.

12년에 견훤이 古昌郡을 포위하였다. 금필이 이를 구하기 위해 태조를 따라 가 禮安鎮에 이르렀다. 태조가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싸움이 만약에 불리하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대상 公萱과 洪儒가 말하기를, ‘만약 불리하면 竹嶺을 따라 돌아올 수 없으니 마땅히 미리 사잇길을 닦아둬야 좋을 것입니다.’ 금필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무기는 凶器요 싸움은 위급한 일이니 죽자는 마음이 있고 살고자 하는 계책이 없는 후에야 가히 決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에 임하여 싸우지도 않고 먼저 패배할 것을 걱정하여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만약 구원이 미치지 않는다면 고창 3천여 무리를 고스란히 적에게 주는 것이니 어찌 절통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진군하여 급히 공격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태조가 이에 따랐다. 금필이 이에 猪首峯으로부터 분격하여 이를 대파하였다. 태조가 군에 들어가 금필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늘의 승첩은 경의 힘 덕분이다’라고 하였다.⁷⁶⁾

기록을 통해 보듯이, 유금필은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퇴각하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⁷⁷⁾ 그는 무기는 흥기이고, 싸움은 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죽자는 마음이 있고 살고자 하는 계책이 없는 후에야 결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적과 대적

76)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十二年甄萱圍古昌郡 黔弼從太祖往救之 行至禮安鎮 太祖與諸將議曰 戰若不利將如何 大相公萱洪儒曰 若不利不可從竹嶺還 宜預修間道 黔弼曰 臣聞兵凶器戰危事 有死之心無生之計 然後可以決勝 今臨敵不戰 先慮折北何也 若不及救 以古昌三千餘眾 拱手與敵豈不痛哉 臣願進軍急擊 太祖從之 黔弼乃自猪首峯 奮擊大破之 太祖入其郡 謂黔弼曰 今日之捷卿之力也”.

77) 이도학, 앞의 책, 2015, 320쪽.

하여 싸우지도 않고 패배할 것을 걱정하여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속히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임해야만 전투에서 승리를 도모할 수 있고, 어렵사리 획득한 고창 지역의 안위마저 보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는 예하 장졸들을 이끌고 저수봉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진하는 용맹스런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후백제군을 대파하는데 앞장섰다. 장수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 용기 있게 임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유금필은 ‘지’를 풍부하게 섭렵한 장수였다. 장수된 자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세와 적·아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투 상황에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전술운용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유금필은 전쟁을 기획하고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전략적 식견이 풍부하고 군사들을 운용하는 용병술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던 장수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당시 북방에 위치하던 골암진을 평정하던 기록 속에서 잘 나타난다.

태조는 北界 鵲岩鎭이 누차 北狄의 침입을 받자 제장들을 모아 의논하기를, ‘지금 南旼이 멀하지 않았는데 북적이 가히 우려되니 나는 오매불망 근심하고 있다. 금필을 파견하여 진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모두 ‘좋다’고 대답했다. 이에 명하니, 금필이 그 날로 開定軍 3천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골암에 도착한 뒤 동쪽 산에 큰 성을 쌓고 거처하였다. 그는 北蕃 추장 300여인을 불러 성대하게 주연을 베풀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들이 취한 때를 타 추장들을 위협하니 모두 복종하였다. 마침내 사자를 여러 부락에 파견하여 말하기를, ‘이미 너의 추장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와서 복종하라’하였다. 이에 여러 부락에서 서로 이끌고 來附하는 자가 1,500인이었다. 또 포로 3,000여인을 돌려보냈다. 이로 말미암아 북방이 편안하므로 태조가 특별히 褒獎을 더하였다.⁷⁸⁾

왕건은 후백제를 아직 평정하지 못한 시점에서 수시로 북적들로

부터 침입을 받고 있던 북계의 골암진을 우려하였다. 이에 유금필을 파견하여 진수토록 하였다. 골암진에 도착한 유금필은 동쪽에 위치한 산에 커다란 성을 쌓고 기거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관찰하였다. 북적들의 분포와 동향 등을 파악한 그는 부락의 대표자인 추장들을 초청하여 酒食으로 대접한 다음 이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복종케 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의 휘하에 있던 무리들 또한 자진하여 항복하도록 회유하였다. 유금필의 기지와 지략으로 고려는 번인들의 도전을 제압하고 북방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금필이 상황 파악 및 권모술수에 능하고 출중한 지략을 지녔던 장수였음을 일깨워준다.

유금필의 뛰어난 지략은 925년 후백제와의 조물성전투에서도 발휘되었다. 당시 전투는 후백제의 군사들이 심히 정예로워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마침 왕건은 견훤이 화친을 요청해오자 그를 병영으로 불러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금필은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가벼이 적과 더불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개진하며 태조를 만류하였다. 결국 견훤과의 화친 논의는 무산되었다.⁷⁹⁾ 당시의 전황과 전쟁의 추이, 적장의 의도를 헤아려 대응하는 지략가다운 유금필의 풍모를 살펴볼 수 있다.⁸⁰⁾

유금필은 ‘인’의 자질을 갖춘 장수였다. 장졸들은 물론 정별한 지역민들을 인애로 대함으로써 인심을 얻은 인물이었다. 후백제로부터

78)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太祖以北界鵲岩鎮 數爲北狄所侵 會諸將議曰 今南兗未滅 北狄可憂 朕寤寐憂懼 欲遣黔弼鎮之如何 僉曰可乃命之 黔弼即日率開定軍三千 以行至鵲岩 於東山築大城以居 招集北蕃酋長三百餘人 盛設酒食饗之 乘其醉脅以威酋長皆服 遂遣使諸部曰 旣得爾酋長 爾等亦宜來服 於是諸部相率 來附者千五百人 又歸被虜三千餘人 由是北方晏然 太祖特加褒獎”.

79)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太祖與甄萱戰於曹物郡 萱兵銳甚未決勝負 太祖欲與相持以老其師 黔弼引兵來會兵勢大振 萱懼乞和太祖許之 欲召萱至營論事 黔弼諫曰 人心難知 豈可輕與敵相狎 太祖乃止仍謂曰 ‘卿破燕山任存功旣不細 待國家安定當策卿功’

80)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黔弼諫曰 人心難知 豈可輕與敵相狎 太祖乃止”.

나주지방을 탈환하기 위해 수군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조와 여러 신하들이 나눈 대화에는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18년에 태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羅州 경계 40여군은 우리의藩籬가 되어 오래도록 평화에 복종해왔다. 일찍이 大相 堅書·權直·仁壹 등을 보내어 위무하게 하였는데, 근자에 이르러 백제의 劫掠을 당하여 6년 동안이나 海路가 통하지 않으니 누가 나를 위해 이를 안무하겠는가?’ 洪儒와 朴述熙 등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용맹하지는 못하나 원컨대 한 장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태조가 말하기를, ‘무릇 장수로 삼는 자는 인심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公萱과 大匡 悌弓 등이 아뢰기를, ‘금필이 마땅합니다.’ 태조가 말하기를, ‘나 역시 이미 그를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근자에 신라의 길이 막혔을 때 금필이 가서 그것을 통하게 하였는데, 나는 그 수고를 생각하니 감히 다시 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금필이 말하기를, ‘신의 나이가 이미 늙었으나 이는 국가의 대사인데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태조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경이 만일 명을 받는다면 어찌 이보다 기쁜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마침내 都統大將軍으로 삼아 예성강까지 가서 송별하였다.⁸¹⁾

935년(태조 18), 왕건은 후백제에게 빼앗겼던 나주를 탈환하기 위해 군사적 방책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장수를 천거토록 하였다. 왕건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수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 주목한 덕목은 ‘인’이었다. 부하들과 현지민들로부터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장수가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왕건이 “무릇 장수로 삼는 자는 인심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왕건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공훈과 제공은 유금필을

81) 『高麗史』 卷92, 列傳5 庚黔弼. “十八年 太祖謂諸將曰 羅州界四十餘郡 爲我藩籬 久服風化 嘗遣大相堅書權直仁壹等 往撫之 近爲百濟劫掠 六年之間 海路不通 誰爲我撫之 洪儒朴述熙等曰 臣雖無勇 願補一將 太祖曰 凡爲將貴得人心 公萱大匡悌弓等奏曰 黔弼可 太祖曰 予亦已思之 但近者新羅路梗 黔弼往通之 脫念其勞 未敢再命 黔弼曰 臣年齒已衰 然此國家大事 敢不竭力 太祖喜垂涕曰 卿若承命 何喜如之 遂以爲都統大將軍 送至禮成江”.

적임자로 추천하였다. 유금필이 적임자라는 사실은 왕건 역시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유금필이 왕건을 비롯한 신료들 사이에서 군사들과 인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장수로 널리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유금필이 지닌 후덕한 인심과 타인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은 후백제로부터 오랫동안 劫掠을 받아왔던 나주 지역민들의 민심을 고려 정부로 향하게 하는 한편, 위무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유금필은 ‘신’의 자질을 갖춘 장수였다. 예하 장졸들과의 관계에 있어 믿음과 신뢰, 의리가 깊었던 인물이었다. 정남대장군에 임명된 932년에 후백제의 신라 경주 침략을 막기 위해 장사 80명으로 선발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한 기사 속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필이 壯士 80명을 선발하여 그곳에 이르렀다. 槎灘에 도착하여 사졸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여기에서 적과 만나면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함께 희생당할 것이 염려되니 각자 살 계획을 마련함이 좋겠다’ 하였다. 사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죽으면 죽었지 어찌 장군만을 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한마음으로 적을 공격할 것을 맹세하였다. 사탄을 건너 백제의 統軍 神劍 등과 조우하였다. 금필이 싸우고자 하였으나, 백제군이 금필의 부대가 대오가 정예한 것을 보고 싸우지 않고 흩어져 도망하였다.⁸²⁾

이 기사에 주목되는 부분은 사탄에 도착한 뒤 유금필과 선발된 장사 80명이 나는 대화의 내용이다. 유금필은 적과 조우시 자신이

82)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黔弼選壯士八十人赴之 至槎灘謂士卒曰 若遇賊於此 吾必不得生還 但慮汝等同罹鋒刃其 各善自爲計 士卒曰 吾輩盡死則已 豈可使將軍獨不生還乎 因相與誓同心擊賊 既涉灘遇百濟統軍神劍等 黔弼欲與戰 百濟軍見黔弼部伍精銳 不戰自潰而走 黔弼至新羅”.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초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사졸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들에게 각자 살 길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그를 따랐던 사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자신들이 같이 죽으면 죽었지 장군만을 홀로 희생당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졸들의 충정어린 결사 의지에 감동을 받은 유금필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적과 싸울 것을 맹세하고 진군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후백제 신검군의 도전을 물리치고 경주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유금필 열전에 열거된 기록 중에서 영웅적이며 미화된 색채가 강한 기록이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 유금필과 장졸들간에 형성되었던 믿음과 신뢰의 깊이를 헤아려볼 수 있다. 믿음과 신뢰에 기초하여 부대를 운영하고, 사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전장을 누비던 유금필의 장수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유금필은 고려 왕조와 왕건을 위해 ‘충’을 실천한 장수였다. 그가 죽은 뒤에 내려진 忠節이라는 시호는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후삼국 통일전쟁 기간 동안 수행된 여러 군사활동을 통해 보더라도 그가 충절을 다바친 장수였음은 뚜렷이 입증된다. 특히 931년 곡도 유배기에 벌인 군사활동은 충절의 표상으로 삼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14년에 참소를 당하여 鶴島에 유배되었다. 이듬해에 견훤이 海軍將 尙 袞 등으로 大牛島를 공략하게 하였다. 태조가 대광 萬歲 등을 보내어 구하게 하였으나 불리하였다. 태조가 이에 근심하니 금필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비록 죄를 입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백제가 우리의 바다 고을들을 침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本島와 包乙島의 丁壯들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고 또한 전함을 수리하여 방어케 하였으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태조가 글을 보고 울며 말하기를, ‘참소를 믿고 어진 사람을 내쫓은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사자를 보내어 소환하고

위로하며 말하기를, ‘경은 실로 무고함에도 귀양을 살게 되었건만 일찍이 원망하거나 분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보위할 생각을 했으니 내가 심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자손에 이르기까지 상을 연장하여 경의 충절에 보답하고자 한다’ 하였다.⁸³⁾

유금필은 태조 14년(931)에 중앙의 정치세력들로부터 참소를 당하여 곡도에 유배되었다. 유금필이 유배에 처해 있던 시기는 후백제의 수군들이 大牛島⁸⁴⁾를 포함한 서해 중북부 해역을 공략하면서 고려를 압박하던 시기였다. 유금필은 비록 유배중인 상황이었지만 고려에 대한 충절을 저버리지 않았다.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여 자신이 유배중이던 곡도와 인접한 包乙島(대청도)의 丁壯들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였고, 파손된 전함을 수리하여 해상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유금필이 이와 같은 조치를 담은 상소문을 올리자, 왕건은 무고한 귀양살이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국가를 보위할 생각에 전념하였다고 위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다시금 기용하였다.

유금필의 충절은 이듬해 신라의 경주 구원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하던 중 子道에서 만난 神劍軍을 격파한 사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왕건은 유금필이 이룩한 공적을 두고 “경의 공은 옛날에도 또한 드문 일이니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83)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十四年 被讒竄于鵠島 明年甄萱海軍將尙哀等 攻掠大牛島 太祖遣大匡萬歲等往救不利 太祖憂之 黔弼上書曰 臣雖負罪在貶聞 百濟侵我海鄉 臣已選本島及包乙島丁壯 以充軍隊 又修戰艦以禦之 願上勿憂 太祖見書泣曰 信讒逐賢是予不明也 遣使召還慰之曰 卿實無辜見謫 曾不怨憤 惟思輔國 予甚愧悔庶 將賞延于世 報卿忠節”.

84) 대우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 龍川郡 山川의 기록에 근거하여 평안북도 용천군에 위치한 섬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015, 481~482쪽에 소개된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에 위치한 대우도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기왕의 견해와 비판적 검토는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2016, 277~279쪽에 자세하다.

러나 유금필은 이를 사례하며, “어려움에 처하여 사사로움을 잊고,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일 따름입니다”라며 장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자 본분임을 강조하였다.⁸⁵⁾ 신하된 자로서 국왕에게 절개를 바치고, 사사로움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충’을 실천한 장수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금필은 후삼국전란기에 전해지고 있던 병법서를 통해 장수로서 갖추어야 자질을 습득하였다. 그가 학습하였음직한 대표적인 병서는 육도였다. 그는 육도에서 장수의 자질로 강조하던 용·지·인·신·충의 덕목을 중시하고 실천하였다. 그가 수행한 수많은 군사활동 속에는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한 사례들이 실증적으로 나타난다. 유금필이 장수로서 지녔던 자질은 그 자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적인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부대를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갖춘 장수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은 휘하의 중견급 장수들은 물론 말단의 병사들에게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유금필이 육도의 덕목을 통해 습득한 장수로서의 자질을 실천하였던 것처럼 그의 휘하에 있던 장졸들 역시 용·지·인·신·충의 덕목을 연마하고 실천하였을 것이다. 유금필의 이러한 노력은 구성원들의 사생관과 국가관을 확고히 함은 물론 결집력과 사기, 전투력을 드높여주는 가운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85) 『高麗史』卷92, 列傳5 庚黔弼. “黔弼留七日 而還遇神劍等於子道 與戰大克 擒其將今達奐弓等七人 殺獲甚多 捷至太祖驚喜曰 非我將軍孰能如是 及還太祖下殿迎之 執其手曰 如卿之功古亦罕 有銘在朕心 勿謂忘之 黔弼謝曰 臨難忘私 見危授命 臣職耳 聖上何至如斯 太祖益重之”.

5. 맺음말

유금필은 평주 출신으로 패강진의 군진세력에서 호족으로 성장한 가문의 후예였다. 그의 선대는 본래 고창군 무장면 무송현에 토착하던 가문이었다. 그러나 8세기 말에 패강진이 설치되면서 평산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번성하였다. 유금필은 궁예가 패서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오자 자연스럽게 그 정권에 들어가 활동하게 되었다. 유금필이 궁예정권하에서 활동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그의 본격적인 활동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던 918년 이후부터 나타난다.

유금필은 고려가 건국된 이후 수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벌인 군사활동은 고려가 건국되는 918년부터 후삼국이 통일되는 936년까지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조물성전투, 고창전투, 운주전투, 일리천전투 등 후삼국 전쟁의 정세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상전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군이 주도한 나주지역 탈환 작전과 후백제왕 견훤의 호송 작전에도 참가하여 수훈을 세웠다.

유금필이 참가한 전투에서 승리할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신의 부대를 굳센 기병력을 자랑하는 ‘경기’ 중심의 군사들로 편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 경기는 민첩한 기동력과 우수한 무장력, 강력한 돌파력, 다양한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는 전술 구사능력을 두루 갖춘 기병들이었다. 이들은 개별 전투원의 역할은 물론 조직적인 전투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유금필 부대의 경기들은 고려가 건국되던 초창기에는 고려의 기병들이 다수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전투 양상이 격화되고, 북방 이민족들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이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유금필은 이들로 구성된 부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중견급 지휘관의 임무 역시 대체로 고려의 장수들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말단의 단위 부대를 영솔하는 지휘관의 임무는 이민족 출신의 인물들이 담당하기도 하였다.

경기의 우수한 전투력과 함께, 유금필이 지닌 장수로서의 뛰어난 자질도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고려사』 열전에는 그가 장략을 지닌 인물로 사졸들로부터 인심을 얻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가 장수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학습한 병서는 육도였다. 그는 육도에서 제시한 용·지·인·신·충의 덕목을 중시하고 실천하였다. 그가 지휘한 주요 군사활동에는 이러한 덕목을 실천한 사실들이 생생하게 전한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영솔하는 최고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장수로서 그가 습득한 자질은 예하 장졸들에게 전수되면서 큰 영향을 끼쳤다. 장졸들 역시 그가 중시한 용·지·인·신·충의 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결국 유금필과 그 구성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2017.1.10, 심사수정일: 2017.2.15,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명장(名將),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경기(勁騎), 장략(將略), 용병술(用兵術), 육도(六韜)

<ABSTRACT>

Yoo Kum-Pil whose posthumous name was
Chungjeolgong, Great Commander of the Koryo
Dynasty

Shin, Seong-Jae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life and military activities of Yoo Kum-pil, Koryo dynasty's great general who fulfilled the highest achievement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In this paper, major focus was laid on his tactics and the qualities as a commander based on Yoo's military operations in warfare.

Yoo Kum-pil was from Pyeongju region, being a descendant of Paekangjin power clan. His ancestors originally were native to Kochang area, but moved to Pyeongsan locality when Paekangjin military post was established in late 8th century. Yoo family then prospered with the new clan base. When 'Gungye', who was the leader of older Koguryo region, expanded its power onto Paeseo zone, Yoo Kum-pil swore allegiance to Gungye regime and started his career there. However, it was only after Wang Kun founded Koryo that Yoo's real reputation began to be known.

Yoo Kum-pil took part in numerous battles and triumphed over everytime. His military operations between 918, when Koryo was founded, and 936, the year of the unification, could be divided into 5 phases. Yoo's martial prowess reached its greatest height during the battles of Jomul fortress, Kochang, Oonju, and Ilicheon. Moreover, Yoo also was given credit for the naval retaking of Naju and participating in Gyeonhweon's escape to Koryo.

Yoo Kum-pil's invincibility lied in his ability to organize his troops into strong cavalry(勁騎), which excelled in mobility, superior armament, mighty breakthrough power, and flexible use of tactics. Such talents were well displayed in individual as well as group combats.

During the times when Koryo was just established, Koryo men were the majority in the cavalry. However, the influx of northern people outside of the border

increased as the unification war intensified. They soon formed the biggest group of Koryo horsemen. Yoo Kum-pil assumed the highest command of this troop, as well as commanders of the main body going to Koryo generals. However, foreign officers were in charge of minor unit forces.

Along with outstanding cavalry performance, Yoo Kum-pil's personal military genius could also be attributed to his victorious career. In the biographies section of History of Koryo, documents show Yoo being a 'general strategy(將略)', earning respect from his men. The book of military strategy that Yoo studied to enhance his capabilities was Six Secret Teachings(六韜). He treasured and practiced the virtues of bravery(勇), intelligence(智), benevolence(仁), trust(信), and loyalty(忠) from this treatise. Yoo clearly applied the teachings of this book to his major military activities. Since he was the highest commander of the army, Yoo's men also learned of his taught qualities, which in turn had significant effects in many aspects. Yoo's generals and soldiers eagerly followed their general in terms of realizing six virtues as well. Thus, much endeavors of Yoo Kum-pil and his army personnel ultimately worked as a driving force for Koryo to unify the Three Kingdoms.

Key words : great general, Chungjeolgong, Yoo Kum-pil, invincible cavalry, general strategy, tactics, Six Secret Teachings